

다니엘 K. 다르코 박사, 루가 복음, 20차, 소유물과 식량, 루가복음 12:13-34

© 2024 댄 다르코 (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이것은 누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0, 소유와 공급, 누가복음 12:13-34입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Biblica e-learning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 일부를 살펴보았고, 마지막 세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자도의 준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여정을 계속하면서, 9장 51절로 향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우리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에서 몇 가지 일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여정 이야기에서, 누가가 이 세션으로 우리를 데려오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에서, 저는 더 광범위한 세션을 다가올 심판에 대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에서 특별히 살펴보는 하위 세션은 소유와 공급을 다루는 세션입니다. 그러니 빨리 넘어가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소유와 왕국에서의 공급이라고 부르는 이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는 예수와 군중 사이의 경쟁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원한다면 대화를 방해하고 상속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자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예수답게 그 사람을 꿰뚫어보고 질문이 어디에서 오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부분은 상속에 대한 질문이며 예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지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께서 종종 부자 바보의 비유라고 부르는 비유를 통해 소유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후에 제가 본문을 읽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정신 지도를 가지고 계십시오. 우리의 필요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필요성이나 갈망을 유발하는 문제라면, 불안을 올바른 위치에 두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곧 읽을 것이지만, 예수께서는 사실 미래의 공급을 신뢰할 곳이 있다면, 아마도 신뢰할 곳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보여 주십니다.

이 특정 구절의 마지막 세션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청중에게 도전함으로써 이 진술을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살펴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질문을 했지만, 그의 도전은 제자들 자신이 그 일부였던 청중에게 가서 고귀한 추구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말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여기 개요에 넣은 세션은 상속 추구가 예수님을 탐욕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는 첫 번째 세션이고, 저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을 읽었습니다.

군중 속의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는 저를 여러분의 재판관과 중재자로 삼은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하고 모든 탐욕에 대해 경계하십시오.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풍부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담론의 마지막 줄에 주목하십시오. 이 질문은 예수께서 여기서 중심 주제인 생명은 소유의 풍부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 구절에서 일어나는 일은 주목할 만합니다.

첫째, 13절을 보면, 예수님께 온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그를 선생님이나 랍비라고 부르며,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뒤의 질문은 또한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잘 판단하고 율법을 집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로, 그리고 제가 신명기와 민수기에 있는 상속에 대한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규정된 율법을 집행할 권위를 가진 분으로 보는 이 관찰은 예수님이 왜

누군가가 제게 와서 물질적 소유에 대해 질문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에 앞서,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왕국에 대한 문제에서는 조심하고 단순함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왕국의 사업은 부를 축적하여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 전체적인 물질적 개념과 관련이 없거나, 필요로 하지 않거나, 투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표면적으로, 이것은 정당한 질문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형제들의 소유물이 있고 형제를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자를 인정한다고 말하고, 이 사람이 저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하고, 예수님께 법을 집행하고 형제가 옳은 일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데 문제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글쎄요, 문제는 예수께서 그 너머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반드시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제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는 누군가를 이 질문 너머로 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긍정적으로 읽혀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자로 만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영어로는 그렇게 명확하게 읽히지 않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주장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을 꾸지람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하는 주된 일은 사람들이 부와 소유물을 할당하고 재분배하려는 이런 일상적인 일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균등성에 대해 염려하셨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요점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봅니다. 루가의 담화에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마태오처럼 누가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허구적 이미지로 언급하고, 때로는 제자들을 거의 형제라는 언어로 언급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누가는 예수님이 제 진정한 친척들이 말하자면 진정한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누가가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 없는 예수에게 묻는 사람은 형제를 말합니다. 그가 물질적 소유에 관한 문제에서라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형제입니다. 예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자연적 친족 관계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는 자연적 친족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질적 소유와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적 소유를 얻도록 돕는 이 사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삶에서 잘못된 추구일 것입니다. 추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이상의 것, 즉 하나님의 왕국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를 이 구절의 다음 부분으로 인도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청중과 제자들이 듣고 비유를 말할 것을 알고 대화를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 바보의 우화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의 땅은 풍성한 것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 작물을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는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말했다. 내 띠를 허물고 더 큰 띠를 만들 거야.

그리고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저장할 것이다. 1인칭 참조, 마음, 그리고 눈에 주목하라-19절.

그리고 나는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구나.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이 네게로 요구될 것이요, 네가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도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이 문단의 시작 부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남자가 물질적 소유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은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화가 나온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이 특정 비유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몇 가지 주요 관찰 사항을 강조하겠습니다. 둘째,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몇 가지 교훈을 강조하겠습니다.

이제 우화에서 핵심적인 관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우화에서 부유한 지주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 없는 부유한 지주는 군중 속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비유에서 누가 예수께서 땅이 많은 작물을 생산했다는 것을 특별히 언급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물을 생산한 것은 지주가 아니었습니다.

농경 세계에서 땅이 많은 작물을 생산했다고 말하는 것은 신이 비를 공급했다는 것을 말한다. 신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다. 신은 이 사람에게 풍부한 작물을 가지도록 축복했다.

그렇다면 땅이 이 작물을 생산했다면, 왜 이 강조, 반복적인 강조가 나에게 있을까요? 미국에 왔을 때, 나는 나, 나 자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를 말하거나 내가 나주의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강조하는 말을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남자는 그것을 살아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의 우화는 여기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아니요, 작물을 생산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작물을 생산한 것은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다른 것은 이 사람이 땅에서 충분한 수확을 거두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갈구하는 그의 갈망은 풍요로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보았다는 사실이 그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전략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 여기 충분해.” 그리고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수확량을 늘리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화에서도 그가 자기 자신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관찰을 시작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가 스스로에게 자문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만들고, 금령을 허물고, 더 많이 짓고,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겠습니다. 이제, 누가가 비유에서 미래의 증가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을 자기에게 돌렸다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하지만 비유의 시작 부분에서는 생산한 것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우화와 서사에서 흥미로운 역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알아? 이제 긴장을 풀 수 있다고 말할게.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어.

나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은 군중 속의 한 남자가 “선생님, 제 형에게서 제 소유물, 제 상속 재산을 얻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러한 비유, 이 특정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고 있던 군중 속에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한다는 동일한 충동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이 가질수록, 그들은 거짓된 예측에 기반하여 더 많은 자신감을 쌓습니다. 미래를 손에 넣었다고 말하는 거짓된 자신감.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감지하고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의 소유물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예수님의 요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실 것입니다. 이 특정 구절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빠르게 배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토지 소유자는 예측에 대해서만 알고 미래를 계획하고 싶어하는 전략적 사고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업체에서 자라면서, 표면적으로 이 글을 읽을 때, 와, 이게 훌륭한 사업 사상가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미래에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에 대한 좋은 투사를 하고 계획을 잘 실행한다면, 실제로는 최소한의 놀라움으로 미래에 순조롭게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 맞아요, 그것이 좋은 사업적 사고입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리더십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생각에 빠지면 마치 우리가 마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과 왕국의 원칙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문제에서도 어떻게든 우리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얼마나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생은 우리 중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주장을 한 지 2분 후에 일어납니다. 때로는 중요한 주장을 한 지 하루 후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예수님의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왕국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열망과 추진력을 가진 사람에게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소유에 관한 문제에서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보통 잘못된 신념 체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틀 전에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자기에게 집중할 때마다 결국 고립되고 혼자가 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외로워집니다.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거의 항상 진정한 공급의 근원과 삶의 진정한 의미에서 눈을 멀게 합니다.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투사의 신중함이 아니라 자신과 수확물의 사용에 중점을 두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우화에서 우리는 바보들이 풍부한 부에서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구절의 아주 초반에 제가 읽었을 때, 예수님은 삶이 소유의 풍요로움에 있지 않다는 명제를 확립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하러 온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이 비유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하면서도 비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진정한 제자들은 자신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보물을 찾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또는 그 사실을 강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보물은 사람이 얻고자 하는 진정한 소유물입니다.

고대 철학자를 좋아하고 철학자의 작품을 읽고 그들의 작품을 바울과 비교하려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 우화를 생각하면서 플루타르코스와 디오 크리소스툼과 같은 사람의 작품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경우, 플루타르코스는 탐욕이나 탐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그는 " 아무것도 쓰지 않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도 항상 더 많은 것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라 "고 말합니다 .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우리의 경이로움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의 병은 가난과 궁핍이 아니라 부에 대한 끝없는 욕망과 갈증이며, 사물에 대한 타락하고 사려 깊지 못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강통처럼 꼬여져 그들을 수축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항상 과잉이 부족할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갈구할 것입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요점은 거의 예수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 플루타르코스는 바울과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요점은 탐욕스럽고 더 많은 것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보통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필요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부유한 지주가 하는 일이고, 그것이 그를 어리석은 부유한 지주로 만드는 것입니다.

탐욕에 대해 말하는 또 다른 철학자로 내가 매우 좋아하는 사람은 디오 크리소스툼으로, 그는 탐욕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디오는 그의 담화 17 에서 몇 줄만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탐욕에 관해서도 모든 사람이 그것이 가장 큰 악의 원인으로 인해 편리하지도 명예롭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그것을 삼가거나 이웃과 동등한 소유물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몇 줄 아래에, 탐욕은 사람 자신에게 가장 큰 악일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탐욕스러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그를 가르치고 싶어하지만, 모두가 탐욕스러운 사람을 피하고 원수로 여깁니다. 비유에서 이 생생한 초상화와 함께, 상속 재산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인 비유의 그 부분에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자 지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이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가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답은, 그것이 네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께서 소유물과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22절에서 즉시 이어서 자세히 설명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제 거의 세그에 가까운 말씀이로다. 이 소유물과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소유물이 정말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마태가 산상에서 기록한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은 음식보다 귀하고 몸은 옷보다 귀하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 예수님은 자연에서 관찰한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돌보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연에서 관찰한 첫 번째는 까마귀입니다. 그는 까마귀를 생각해봅시다. 그들은 씨 뿌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나 헛간도 없습니다. 부자 청년 통치자, 어리석은 땅 주인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은 새보다 얼마나 더 귀중합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써 자신의 수명을 한 시간 더 늘릴 수 있습니까? 그런 작은 일도 할 수 없다면, 왜 다른 것에 대해 염려합니까? 누가는 두 번째 관찰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돌보실 만큼 여러분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따라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염려한다면, 자연에서 관찰한 것도 여기에 나오고, 그것은 꽃, 백합에서
 관찰한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종류의 백합을 주었습니다.
 새들처럼, 그것들은 훌륭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7절에서 예수님의
 요점입니다.

백합을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실도 짓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도
 그의 모든 영광 가운데서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들판에 살아 있다가 내일은 화덕에 던져지는 풀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나 믿음이 적은 너희를 얼마나 더
 입히시겠느냐?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
 절까지 불안의 용어를 거듭거듭 반복하시고 이러한 예를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까마귀는 그렇게 중요한 새가 아닙니다. 그리고 들 백합은 많은
 돈을 주고 사고 싶은 꽃이 아닙니다.

꽃을 사러 가게에 갈 때, 나는 아름다운 꽃을 찾고, 때로는 농장에서 온
 꽃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생 꽃은
 지주의 농장처럼 땅에서 생산됩니다.

아시다시피, 새들은 신비롭지만, 그들은 먹이를 얻습니다. 다시 말해,
 신이 새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말했습니다, 보세요,
 자연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창조의 신이 그의 피조물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를 믿으세요. 그래서 질문이나 믿음이 부족한 당신. 이 비유에서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첫째, 여기서 예수님의 요점은 소유물을 나누는 아이디어에 대한 반응으로, 질문을 한 사람 외의 청중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삶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오의 산상 설교에 대한 실제 교실 토론에서, 저는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 중 8%만이 실제로 우리의 불안을 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를 화면에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8% 중 4%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4%는 거의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의 92%가 완전히 허황된 것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상상 속에서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감아버립니다.

우리는 땀을 많이 흘립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통제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망칩니다. 때때로 그것은 우리 주변의 많은 것을 파괴합니다. 규칙적인 삶과 삶의 조건에 주의를 빼앗기게 하세요.

나는 당신이 당신의 집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와 함께 당신의 결혼 생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들, 건강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잠깐이라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예수님의 요점으로 바로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자로서 삶에 대해, 삶에 대해, 사는 것은 당신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살았어요. 목사로서, 저는 십 대들을 문었어요.

그리고 저는 20대의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상황과 조건은 다양합니다.

우리는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제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어리석은 지주는 자기가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정리하고, 정리하고, 더 많이 모을 거야. 그리고 더 많이 모으면 앉아서 이렇게 말할 거야. 긴장을 풀 거야.

나는 진정할 거야. 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야. 잠깐.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입는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의 어떤 지역에서는 고대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매일 무엇을 먹는지가 도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알몸을 가리기 위해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세상에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선택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먹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을 것이 너무 많고 우리가 그들을 걱정할 때, 그들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은 그들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 척도는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죠, 제 생각엔 1년 반 전쯤인데, 브라질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를 배웠는데, 그 단어는 tranquilo 입니다.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해요. 저는 tranquilo 의 라틴어 발음을 좋아해요 .

브라질 사람이 긴장 풀고, 긴장 풀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신을 믿으라고. 신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관찰은 예수님이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점입니다. 새, 살기 위해 양식이 필요한 생명체,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야 하는 새,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는 새, 사람들이 듣고 즐길 수 있는 소리와 노래하는 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하거나 기대하는 것을 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많이 돌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들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그들을 돌본다. 그 우화에는 신이 내재되어 있으며, 신은 그들을 돌본다. 마찬가지로 자연으로부터의 관찰도 신이 꽃도 돌본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특정 세션의 마지막 요점에서 예수님은 12장 29절에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찾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 그 단어가 민족을 번역한 것은 이방인을 번역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친족 언어를 주목하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이 그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신, 당신이 추구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왕국을 추구하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 대신, 지금 불안을 뜻하는 단어 인 마림 은 걱정을 뜻하는 단어, 두려움을 뜻하는 단어, 불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대신, 그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작은 무리여,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왕국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심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청중에게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유와 보물에 관한 문제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속되는 것, 삶에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주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는 당신이 찾는 분이며, 새와 꽃을 포함한 모든 것을 돌볼 수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은 청중에게 이것이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라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고 마실지,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전능하고, 전능하며, 제공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믿음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태와는 달리, 예수께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는 왕국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의 기록인 마태복음 7장 산상에서, 마태는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왕국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동하지 않도록, 루크는 실제로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공간과 상황으로 초대할 때 오며, 상황을 지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지배하신다면, 그는 사람들과 상황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보세요, 왕국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더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들, 물질적 소유물들, 먹고 마시고 싶은 것들, 상속 재산 분배에 대해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들, 이 모든 소유물들과 물건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의 목회적 마음이 온다. 그는 군중을 돌아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다. 작은 무리라는 표현은 양을 위한 부드러운 목자의 이미지를 전제로 한다.

두려워하지 마, 나의 작은 양 떼여. 제발, 이해하셨나요? 당신 아버지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해하셨나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그의 공급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이 가르침을 주셨을 때, 예수께서는 소유물과 공급에 대한 이 토론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도달하셨습니다.

문제의 핵심, 12장 33, 34절. 소유물을 팔아라. 누군가가 소유물의 일부를 원하면 그는 거절한다.

오히려 가서 당신의 소유물을 팔아라. 궁핍한 자에게 주라. 헛간을 짓지 마라.

창고를 짓지 말라. 낚지 아니하는 돈을 마련하고, 하늘의 보물을 마련하여라. 그 보물은 없어지지 아니하며, 도둑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좀이 해치지 아니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탐욕을 대체할 필요성을 요구하십니다. 관대함을 대체할 필요성을 요구하십니다. 받는 대신, 취하는 대신, 획득하는 대신, 당신이 가진 것을 주십시오.

그는 심지어 팔고, 놓아주고, 소유물을 놓아주고, 당신이 가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션을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해설에서 인용한 요엘 그린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인용문은 여기서 핵심 문제를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은 이렇게 썼습니다. 따라서 왕국을 추구하는 것은 왕국에 마음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향의 결과는 그것이 지상 존재의 긴급 상황에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개입으로 위험에 처하지 않는

천상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동안, 저는 당신이 소유물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두신 왕국의 우선순위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 한구석에,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누가가 사회의 엘리트인 셋 데오피로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데오피로가 예수님과 모든 만남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읽으면서 지위와 소유물이 어떤 것인지 상기시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이 가르침을 적용한다면, 소유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의 욕망과 추구.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습니까? 저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는데, 저는 마을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가나의 새로운 지역인 카탕가의 북부에 있습니다. 지금은 오티 지역이라고 불립니다.

저는 99%의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사는 집에서 자라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관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초등학교 때 맨발로 학교에 오는 친구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기쁨. 하지만, 그들은 성취감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경제가 더 좋고 사람들이 훨씬, 훨씬 더 나은 조건에서 사는 곳을 여행하고 살 수 있어서 축복받았다.

저는 물질적 소유가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번영하는 삶과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중 속의 한 남자가 한 질문은 예수께서 율법을 집행하여 상속 재산의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탐욕을 보셨고, 그것이 암시이며, 비유를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 염려해야 하는지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그는 당신과 나에게 그의 왕국, 그의 통치를 구하라고 부르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자연, 새, 꽃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에게 그와 함께 가라고 초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곳에 두고 하나님의 보물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래 지속될 보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삶에 충만함을 줄 것입니다.

신이 당신을 축복하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신이 당신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당신과 나에게 그를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탐욕이 우리에게서 그가 제공하는 참된 삶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는 충실한 추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0, 소유와 공급, 루가 복음 12:13-34입니다.